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063-220-2410
 전주매일: 063-220-2410
 전주매일: 063-220-241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2017년 3월 17일 금요일 (음 2월 20일) 제176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시, FIFA U-20 월드컵 관광객 유치 나섰다

축구도 보고... 전통문화도 즐기고...

관광상품 개발·홍보
실무 협력체계 구축

시간여행 상품개발 추진
체험 쿠폰북도 발행
'전주야행' 프로그램 강화
'싼키' 유치 온라인 홍보도

오는 5월 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2017 FIFA U-20 월드컵' 대회의 대진표가 모두 확정된 가운데, 전주시가 성공개최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동을 본격화한다.

전주시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기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한국어행사협회(KATA), 코레일, 전주대, 전북도와 인근 시·군 등 관광관련 기관과 단체, 대학 등과 협력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에 관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수목적관광인 U-20 전주월드컵 여행상품과 공동 홍보마케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테마관광 10선 공모사업의 전북권역 총괄기획자로 전주대가 선정됨에 따라, 전주와 군산, 고창, 부안을 연계한 '시간여행' 여행상품개발과 운영을 위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전주대, 관련 지자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U-20 전주월드컵에 맞춘 시간여행 상품 개발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KTX와 전주의 전통문화와 연결된 '유네스코 전주야행' 상품을 다각화하기 위해 전주에서 오랜 시간 체험하며 머물러 있도록 하는 스테이케이션 상품인 '전주야행 체험 쿠폰북'을 발행해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오는 5월 U-20 월드컵 개막에 맞춰 선보이는 덕진공원 3D 워터스크린 영상기반 뮤지컬 공연인 '실록을 탐하다'를 관람할 수 있는 공연상품을 준비해 월드컵 개막일부터 야간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고, 지난해 선보인 '전주야행'의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해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전주로 모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과 부산, 대전 지역 여행사와 여행상품개발에 관



세계호남향우회 일행과 접견

이동수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과 김원봉 중국대련 호남향우회장, 정광일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사무총장이 16일 도청을 방문해 송희진 도지사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세계호남향우회(24개국 52개지역 200만여명) 지역별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2017 세계호남인의 날 기념대회가 오는 10월 전북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한 트래블마트와 관광설명회, 팸투어 등을 잇따라 진행하고, 전주역과 익산역을 연결한 열차여행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상품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이와 함께, 시는 관광관련 기관과 단체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 개발과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드 관련 중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 패키지 중국 관광객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 중국 개별여행객(싼키) 유치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펼치기로 하고, 8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위챗과 웨이보, 중국 포털사이트 SOHU 등 중국 현지 SNS를 통한 온라인 관광홍보를 펼치기로 했다. 또, 관광 발전시장으로 꼽히는 베트남이 오는 5월 28일 전주에서 예선전을 치르는 만큼, 부산지역 여행사와 연계해 베트남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려는 등 말레이시아와 일본, 대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관광시장의 다변화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를 통해서도 회원도시와 연계 마케팅을 통해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부산과 대구, 인천 등 회원도시와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교류를 위해 오는 4월 찾아가는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베트남 관광전에 참가해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도내 화장품기업 일본 진출

휴먼피아 코스텍 '마스크팩' 일본 윌드큐브사와 수출 계약

도내 화장품 기업인 휴먼피아 코스텍(주)이 16일 전주 로니 호텔에서 히트상품인 마스크팩으로 일본 화장품 유통기업인 윌드큐브사와 300만불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 FTA활용 마케팅 지원사업(마이크로피스 지원사업)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출 지원사업이 성과로 나타나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한 휴먼피아 코스텍(주)은 천연소재를 사용한 마스크팩을 개발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1:1 수출상담회와 해외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일본 현지 파트너를 적극 활용해 결실을 일궈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계약식에 이어서 최근 사드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국 수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11개국 15명의 해외 유통바이어를 글로벌

별 통상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전북도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25.1%)가 높아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통상전문위원은 현지에서 직접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바이어로 구성돼 도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 시 시장현황, 컨설팅, 기업애로 해소 등 수출 확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날 참가한 캐나다, 인도, 방글라데시, 터키, 베트남 등의 현지 바이어들은 도내 중소기업 58개사 간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도내 기업들은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앞서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을 통해 직접 제품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수출 희망국에 대한 수출 절차, 시장 경향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향후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안재용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 성공 기원

D-100 태권한마당 잔치

19일 광화문 광장서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기원 D-100 태권한마당 행사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행사는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 의지를 다지고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오후 5시까지 태권도와 대회 관련해 다양한 전시, 체험, 관람, 공식행사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총 6개의 부스로 마련되는 역사관(전시)에서는 국기 태권도의 기원과 유래, 세계대회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태권도체험관(7개 부스)에서는 태권도복을 입고 태권댄스를 배우는 것을 비롯해 올림픽태권도경기용 전자호구와 보호장비 착용, 가상시뮬을 활용한 겨투기와 격파, 그리고 게임형 수련시설을 체험해볼 수 있다.

본 행사는 오후 1시 45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개최선언에 이어 성공기원 메시지 공유와 홍보 위촉(태권도 국가대표 오해리, 이체림, 관람, 공식행사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관(전시)에서는 국기 태권도의 기원과 유래, 세계대회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태권도체험관(7개 부스)에서는 태권도복을 입고 태권댄스를 배우는 것을 비롯해 올림픽태권도경기용 전자호구와 보호장비 착용, 가상시뮬을 활용한 겨투기와 격파, 그리고 게임형 수련시설을 체험해볼 수 있다.

본 행사는 오후 1시 45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개최선언에 이어 성공기원 메시지 공유와 홍보 위촉(태권도 국가대표 오해리, 이체림, 관람, 공식행사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인폭격기 드론 군산배치 철회" 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

전북시민사회단체가 16일 시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인폭격기 드론의 군산 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군산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군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살상무기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군이 13일 최신형 무인폭격기 그레이 이글(MQ-1C) 무인항공기시스템을 군산 미공군기지에 영구 배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며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병참기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무인폭격기 드론은 평소 최전방 지역을 포함한 한국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군의 동향을 정보수집 활동하고 유사시 북한 상공에 침투해 지휘부를 포함한 핵심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며 "무인폭격기 드론 폭격으로 2004~2013년까지 4500~4700여명을 살해했고 그 과정에 어린이 200여명을 포함한 민간인 1000여명이 희생당하는 등 무장폭격기 드론은 철단 살상무기로 군산 미공군기지에 영구 배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 방공은 안보와 보안이라는 논리만으로 군산 미군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뿐 아니라 군산시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무인폭격기 드론(그레이 이글)이 군산시민의 평화적 생존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군사적 무기의 영구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아름다운 선거

투표권 행사

http://assem.muju.org

모두가 행복할 무주!

무주군의의회가 만들어가겠습니다.

군민 郡民 중심 中心의
 참민주의회 民主議會

무주군의의회 MUJU-GUN COUNCIL